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0월 14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09분 44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국민회의 서울시장 경선

정권교체 되고 난 뒤에 서울시장 (선거) 할 때 이종찬 부총재를 가장 강력한 후보인 것으로 생각하고, 당내 경선 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종찬 후보는 안기부로 가버리고(요). 지금 한광옥 대표(가) 서울시장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욕심에 여론(에서) 시장 한번 해보자,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니까 이걸 어느 정도 끌고 가면 정치적 그레이드(grade)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올려보자는 생각으로, 서울시장 깡이라고 한번 인정받는 것만 해도 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장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야당에 그 당시 최병렬 씨던가? 가상대결을 해보니까 한광옥 씨는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나는 이기고 한광옥 실장은 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론이 그래 나오니까 진짜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슬그머니 또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당 일로 생각해서도 이걸 다른 선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울지역 지구당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다녔더니 또 대의원들이 박수도 많이 치고. ‘야, 이거 경선하면 되겠다’ 싶어 경선 등록까지 했어요. 경선 등록을 해놓고 서울시장 경선을 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노 의원은 종로 선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종로에 나갈 사람이 없잖나, 당을 위해서 종로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 고. 그래 나도 미리 예상은 했거든요. 그럴것거니 하고 여론조사 결과만 드리고 왔어요.

오후가 지나서 이강래 정무수석이 좀 보자고 해 갔더니, 아무래도 서울시장은 경쟁력 때문에 고건 씨로 내보내야겠다고 양보해달라고. 그때 내가 내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일(1)위를 하다가 삼(3)월 하순께 고건 시장이 엠비씨(MBC) ‘성공시대’에 출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차이로 일(1)위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마다할 명분이 없지요. 그 당시 고건 씨가 일(1)위였어요. 그 뒤에 차츰차츰 그게 좁아지긴 했습니다만 일(1)위였으니까. 마침 딱 고 시기에 고 시장이 일(1)위였어요. 그래 가지고 뭐 나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방송 땀에 나는 억울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나도 일(1)위가 됐던

것이 대통령선거 때 이십(20)분짜리 찬조 연설, 그 방송으로 일(1)위가 된 거거든요. 방송 덕분에 일(1)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장파장. (웃음)

시장 (경선) 출마했을 때 뭐 별로 달리 남는 건 없고, 공약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겠지만, 공약 일(1)호를 ‘자존심 있는 서울시민’ (을)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 값 냅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만, 끊임없이 요구하고 불만사항을 말해 오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경제력도 앞서고 모든 일의 중심이고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젠 좀 책임을 생각하는 시민이 돼야 한다. 어떤 가치와 문화를 선도하는 시민이 되자는 것을 내걸어야겠다.

우선 서울 수돗물. 이 수돗물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민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대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깨끗한 물을 요구하는, 이런 서울시민다운 서울시민. 말하자면 어떤 시민적 자존심 가짐을 서울시정의 하나의 방향으로 잡는 것이 필요한 때다 라는 생각을 해서 ‘물 값 내는 시민’ 을 머릿속에다가. 저는 그것이 꼭 표를 깨먹는다고 생각지 않았습시다. 그것 때문에 표가 깨진다고 생각지 않았고,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느냐면 정치 불신은 선거 때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불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치인은 유권자 탓으로 돌리고 유권자는 정치인 탓으로 돌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때 그때 하는 정치인의 태도 때문입니다. 선거 때 정치인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에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해당되는 것, 해당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선거 때 다 요구해요. 그것은 그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 옳지 않은 일들이 엄청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지역감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보통 때는 지역감정을 전부 개탄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감정을 부추깁니다.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정치) 절반입니다. 선거 때 공약과 캠페인의 태도를 뭔가 한 수준 높은 것으로 내놔야 된다. 공약과 캠페인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치인은 밤낮 그 선거 때 했던 말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불신 받고,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불신 받고 이렇게 됩니다. 정치 불신의 원인이고, 그 정치 불신을 그대로 가지곤 국가운영이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시민들과 더불어서 보다 나은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함께 요구하면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돼야 된다. 선거 캠페인과 공약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우리 한국 사회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오

(5)공이 아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도, 남북정책도 남남갈등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에 가장 편한 것은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어 놓고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거죠). 전통적으로, 왜 민심이 흔들리면 대외전쟁을 벌이는 것이 옛날 독재자들의 수법이었잖습니까? 끊임없이 실제 이상으로 반공논리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이간질)시켜 왔지요. 지금 그 반공논리가 새로운 시대 진전에 발목을 잡고, 지금도 그게 악용되고 있고. 반공논리를 가지고 한 몫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요).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에 필요해서 국민들한테 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할 일을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선거 캠페인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